"추운 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싶네요"

●'코로나·강추위·셧다운 삼중고' 인력중개소 가보니

전문직 대비 일반 근로자 일감 '하늘의 별 따기'

겨울철 비수기까지 겹쳐…가족·생계 걱정 토로

겨울철 비수기 등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광주 서구의 한 인력사무소에 노동자들이 일감을 얻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오늘도 자리가 없나 보네요. 기다려 보다가 집으로 가야 하나 걱정입니다."

7일 오전 5시50분께 광주 서구 소재의 A 근로자 대기소.

동이 트지 않아 아직 거리엔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시간이었지만 인력사무소엔 일거리를 찾기 위한 구직자들이 하나 둘씩 들어왔다.

코로나19, 강추위, 건설현장 셧다운 등 다양한 이유로 일감을 찾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이유로 중년의 구직자들은 마스크의 두건 등으로 중무장한 채 사무소 의자에 앉아 자신들의 이름이 호명되길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들은 드물었다.

아파트 건설현장 같은 곳에서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다 보니 중년 구직자가 갈 곳은 소규모 개인 사업체 정돈데,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다.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근로자들이 일감을 찾기란 그야말로 운에 달렸다.

실제 이날 미장일을 하는 50대는 인력소에 들어와 커피 한 잔을 마시자마자 일이 잡혀 현장으로 향했다.

이를 본 일반 중년 구직자들은 부러운 시선 보내는 한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다 인근 인력사무소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 6명이 근처 아파트 현장으로 가자 이곳 중년 구직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

A 대기소 소장은 "딱 잘라 이렇다 말하긴 어렵지만 겨울엔 주로 12월25일 정도 되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데, 요즘은 지난달부터 일이 많이 줄었다"며 "그래도 간간히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인원들을 보내지만 최근에는 그마저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감을 받지 못한 구직자들은 배정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 인력사무소를 들락거리거나 전화를 걸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광주 동구의 B 인력사무소 앞에서도 4-5명의 중년 구직자들이 땔감불에 몸을 녹이며 일감을 기다렸지만 소득은 없었다.

B 인력사무소 소장이 "오늘 일감 없으니 돌아가세요"라는 말에도 구직자들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력사무소 주변을 떠나지 못했다.

어제와 오늘 모두 공쳤다는 C씨는 "처음엔 일이 없어 허탕치고 나갈 땐 많이 속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인력 일은 대부분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일이 없어서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한탄했다.

D씨도 "한 달 동안 평일에 일을 다 해도 20일이 한계인데 최근엔 대부분 10일도 못한 것 같다"며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나와 바로 일하러 나갈 때 가장 보람을 느껴, 할 수만 있다면 일을 실컷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안태호·주성학 수습기자

광주·전남경찰직협, 류삼영 총경 중징계 철회 촉구

오늘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수위 결정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신설반대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7일 오전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경찰국 신설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추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조직 현안에 대한 총경회의 등 경찰관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통로를 폭넓게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류삼영 총경은 경찰청이 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외청으로 독립한 이유는 정치적 독립에 있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은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는 여론이 일자 지난 7월23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내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추진했다"며 "당시 총경 및 서장들은 평일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휴가를 내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류 총경이 추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지금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윤 청장에게 이와같은 입장문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 총경 징계 수위는 8일 예정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윤 청장은 징계위에 류 총경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는데,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 경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계속 추진해 대기발령 인사 조치와 감찰 조사를 받았다. /오복기자

선거법 위반 목포시장 법률대리인 사임

배경 놓고 해석 분분…차기 주자 움직임에 정관가 촉각

6·1 지방선거와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과 배우자의 공직 선거법 위반 법률대리인이 최근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지난달 29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거리 유세, 후보자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은 박 시장과 함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박 시장과 배우자의 법률 대리를 각각 맡아 오던 법률대리인이 지난달 30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법률대리인의 사임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유도죄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이 사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박 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차기 주자들이 거론되거나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다는 설까지 나도는 등 지역 정관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국힘 광주 구의원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입건

선거사무장에 '술값 결제' 강요 의혹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광주 구의원 후보가 선거사무장에게 술값 결제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후보 A(2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인 지난 5월11일부터 같은달 29일 사이 8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장 B(22)씨에게 술값 비용을 계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계좌이체 등을 통해 A씨의 술값을 대리 지출한 금액은 총 341만원이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뒤 정치자금을 유용한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원인 가족에게 지급한 수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총 100만원을 술집 등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받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복기자

기아 로드 탁송 완성차 사고 잇따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된 수출용 신차들이 로드 탁송 중 잇달아 사고가 났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서구 무진대로에서 목포항으로 향하던 수출용 차량이 주행 중이던 다른 차와 부딪혔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로드 탁송 차량이 크게 파손돼 견인됐다.

앞서 오전 9시께도 서구 기아차 2공장 서문 주변 도로에서도 로드 탁송 차량과 일반 차가 충돌했다. 인명사고로 번지진 않았다.

두 차량은 이날 오전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출발해 목포 신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기아 광주공장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안재영기자

연인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검거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41분께 북구 문흥동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재영기자

연인 협박·경찰 폭행 30대 집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전 여친 100m 이내 접근 금지,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약 4년간 동거했던 30대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갔다가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정신 차려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치고 휘두르는 등 협박을 가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오복기자